

“풍수지리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토론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기존의 집권세력이 새로운 개혁세력으로 대체되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결과 집권세력의 세대교체와 이념의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수도의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재 추진되는 수도가 행정만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공무원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업여건상 경제기능도 상당부분 신행정수도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천도로 인한 국력낭비로 정권이 망한 경우도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행정수도 건설이 집중완화와 지역균형에 기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직도 수도 이전은 진행형인 곳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공사도 빨리 하지만, 안정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수도권의 5개 신도시를 건설한 것이 불과 10년전이지만 이미 과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도 입지에 관계없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의 여당 승리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여론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남아있다. 입지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운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수도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중치에 대한 연구는 이미 지난해에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1차적인 안을 작성하였다. 위치, 개발가능성(지형적 조건, 토지이용가능성, 장래 확장 가능성, 복사면율, 대지조성 용이도, 지하구조물 구축 용이도, 토양), 지세, 교통, 용수, 배수 및 하수처리, 지장물 및 보상, 도시방호 및 방재, 관광자원 및 역사적 사상, 도시건설 지원, 기상 등의 주요 항목들을 설정하고 요인분석 및 AHP기법을 이용하여 항목 및 가중치를 결정하여 입지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들 항목들을 보면, 풍수지리와 관련이 깊은 사항들이 많다. 김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풍수지리를 미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특히, 지형이나 지세, 교통, 용수, 배수 등과 관련된 많은 항목들이 풍수지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풍수지리의 개념 설명에서 지적하듯이 지기에 대한 검토와

땅의 하중 능력 파악, 그리고 풍수체계에 맞는 공간적 배치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치유기능을 보유한 풍수지리를 고려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이의가 없다. 다만, 풍수지리에 대한 여러 학설이 존재하고 있고, 완벽한 수도의 명당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점에서 어디가 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되든지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김교수님이 제시하는 풍수지리에 입각한 입지 조건을 보면, 중심적 위치, 개발이 되지 않아 지기가 충만한 곳, 명당도의 여건을 갖춘 곳, 고도(古都) 제외원칙, 백두대간과의 관계성, 남동향 또는 남향, 동향의 배치가 가능한 곳, 주변지역의 문화재 및 역사성, 접근성, 주산(主山)의 형상 및 위치, 물길의 흐름세 등 10가지 정도이다. 이들 원칙들을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백두대간과의 관계성, 주산의 형상 및 위치 정도일 것이다. 나머지 입지조건들은 1978년 수립된 기존의 백지계획이나 지난해 마련된 기준안에서 고려된 내용과 부합한다. 백두대간과의 관계성 등도 위치적인 특징 등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이름만 풍수지리에 의한 행정수도 입지 결정이 아닐 뿐, 실질적인 입지요건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풍수지리를 전면에 내세워 비판을 받거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할 필요는 없다.

풍수지리 원칙	후보지 평가 기준 항목(안)	고려 대상 세부항목	비교
중심적 위치	중심성	입지범역 설정 기준	◎
미개발지(지기충만)	기개발지	경제성 차원에서 고려	◇
명당도의 여건	자연조건	지형의 안전성, 배산임수,	◎
고도제외	통합성 및 상징성	역사성	○
백두대간과의 관계	자연조건	지형의 안전성	△
방향(남동향)	자연조건	지형	○
주변지역의 역사성	통합성 및 상징성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성	문화성 및 역사성	◎
접근성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도로, 철도, 공항 접근성	◎
주산의 위상	자연조건	경관	△
물길의 흐름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 수질, 생태계보전 등	○

◎ 동일, ○ 부분적 고려, ◇ 고려되나, 반대의 개념, △ 유사

풍수지리와 신행정수도

토론자 윤성국(대전매일신문 편집부국장)

◎ 지금 지방언론에서는 신행정수도 관련한 소식 핫이슈이다. 지면을 무조건 할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솔직히 신행정수도가 오면 우리 지역 언론도 큰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신문에서 중앙신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물론 역설적으로 중앙 언론의 지역 시장 확대 경쟁으로 더욱 험난한 경쟁이 우려되기도 한다.

하여튼 다행히도 신행정수도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당초 추진일정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지금도 신행정수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최근 들어 긍정하느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얼마 전 있었던 총선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넘게 확보 한 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 한다.

김두규 교수님의 “풍수지리와 신행정수도”라는 글을 읽고 풍수지리에는 문외한이지만 평소 궁금한 것이 있어 견해를 듣고자 한다.

1. 교수님은 신행정수도 택지 원칙을 중심성의 원칙, 처녀지 등 10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을 듣고 토론자는 과연 지금 거론되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중 이 10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곳이 있는 지 의문이다. 실제 존재한다면 10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곳이 가장 적지일텐데 이 곳 충청지역 후보지 중 한 곳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다.

2. 이 원칙을 들여다보면 풍수지리 상의 원칙들을 현대 입지 요건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어차피 행정수도 입지 평가항목은 국가균형발전, 국내외 접근성, 자연조건, 환경보전, 개발 용이성 등이 주가 된다.

충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입지 여건은 이러한 기본적인 평가항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풍수지리상의 10가지 원칙을 현대의 기준으로 재해석해 충청의 입지여건이 가장 호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울러 이러한 원칙을 현대 평가 항목에 적절히 적용해 새 입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3. 풍수지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얼마나 참고 되는지 알고 싶다.

풍수지리에 근거한 10가지 원칙중 중심성, 접근성을 제외하면 현실에서 더 이상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 교수님은 풍수지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후보지 평가기준에도 없는 원칙을 행정수도 입지 평가기준에 어떻게 적용해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이러한 풍수지리가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까가 무척 궁금한 사항이다.

4. 신행정수도 건설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다. 그런데 신행정수도과 관련한 도시기본구상이나 입지기준은 물론 관련 자료를 보면 철저하게 역사, 문화에 관련한 기록이 전무한 실정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주는 의미는 지금까지 거론됐던 통합성, 편리성, 중심성, 기능성, 환경성,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신행정수도가 가질 수 있는 문화성, 상징성 및 역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백지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곳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행정수도관련 세미나에서 풍수지리에 대한 토론을 벌인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5. 끝으로 후보지 지역간의 입지 선정 후 화합이 과제이다.

호남고속철 분기점과 관련한 입지 선정문제를 두고 후보 도시간의 논쟁은 격렬했으며, 주요 국책과제 선정시마다 지역간 이해와 맞물려 격

렬한 논쟁과 감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입지 선정과 같은 문제는 입지선정 이후의 후보지역
민간의 감정대립은 물론 선정 이후에도 과연 제대로 수궁할까라는 의
문마저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만큼 지역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대 사안으로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할 정도의 충분한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풍수지리에 근거,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후보지역의
주민간 대립 또는 감정의 골을 입지 선정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유하
고, 화합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 또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가

-
-
- “ ”
- ,
-

가

1. , 處女地, (古都) 가,
地氣, 南- , ‘ , , -
가

가

2. “ ”
 ,
가 가

- 가
-
-

가 , 가
“ 가 ”

.

,

.

,

,

.

가

.

,

.

,

가

,

?

가

.

,

가

가

가

.

“

”

,

“

”

가

가

.

가

가

“

가

(

)

,

”

,

.

가

,

.